"오랜 꿈 '현악 4중주단' 활동 설레요"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젊은 예술인들
since 1952

(2)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 이종만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31·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씨가 처음 손에 잡은 악기는 꼭 장난감 같은 32분의 1사이즈 바이올린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 다시 음악학과에 들어가 첼로를 전공했던 어머니는 이씨가 돌이 되자마자 바이올린을 사놓고 아이가 크기만을 기다렸다. 4살 되던 해 처음으로 바이올린 활을 쥐었고, 그 때의 느낌을 이씨는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청주 출신으로 13세때 대전시향과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은 이씨는 중학교 재학중 런던으로 유학을 떠났다. 15년만의 귀국, 그리고 그가 새로운 둥지를 튼 곳은 광주였다.

"한국에 학연이나 인맥이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향이라는 좋은 곳에서 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나 행복하죠.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온 지인들은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독일 시절이 많이 그립다고 해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여기보다 훨씬 좋으니까요. 그런데 전 그쪽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것 보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웃음)"

너무 어린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던 이씨는 중학교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음악을 놓으려고 했다.

"친구들이 축구하고 야구 하며 뛰어놀 때 전 청주에서 서울로 레슨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좋아서 했다기 보다는 엄마의 권유가 컸던터라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죠. 저도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 진로를 결정할 시기가 왔을 때 아버지가 딱 한말씀 하시더라구요. 아마추어로 남았을 때 정말 연주 잘하는 사람 부러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그때 선뜻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 아, 바이올린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죠. 바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작된 유학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기본기가 약했던 터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연주를 할 때 자꾸 자세가 경직되는 건 무엇보다 컴플렉스였고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다.

27살때 군복무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 경찰교향악단으로 활동했던 그는 기초부터 다시 다잡기 시작했다.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음악성도 좋고, 특유의 소리(tone)를 갖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경직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스스로에게 큰 굴레였죠. 한국에 있는 2년반 동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독하게 다시 시작했죠. 기초부터 철저하게 다시 다지고 나서 토대가 단단해지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장점들이 금방 드러나더라구요. 그래서 표현도 자유로워지고, 머리도 자유로워지고, 곡을 정복해 나가는 것에도 자신감이 붙었죠. 연주자에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는 거라 생각해요."

3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80여명의 단원을 이끄는 '악장' 자리는 새로운 도전이다. 이씨가 정의하는 악장은 '지휘자의 의도를 가장 가까이서 완벽하게 파악가고 각각의 파트를 조율하는 사람.'

"광주시향이 객원지휘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오케스트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요. 고유의 '소리'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듣구요. 독일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프라이드, 자존심·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 굳이 외부의 질타가 없어도 연주자 스스로, 오케스트라 내부에서 가장 잘 알고 갖춰야할 덕목이죠. 부단한 노력으로 최상의 연주를 들려줘야 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구요."

이씨의 올 한해 스케줄은 빡빡하다. 지난 1월초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솔로'로 처음 광주 시민들과 만났다. 오케스트라 안에서 연주하는 것과 솔리스트로 무대에 서는 것은 연주스타일이나, 소리내는 방법, 밀집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기도 하지만 꾸준히 무대에 설 계획이다.

이씨는 오는 2월 3일 금호아트홀에서 귀국독주회도 연다.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 브람스의 곡으로 레퍼토리를 짰다. 4월5일에는 광주의 클래식 기획사 T&T가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바흐 시리즈' 독주회도 예정돼 있다.

올해 이씨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게 있다. 영국과 독일에서 음악을 하면서 오랜 '로망'이었던 꿈, 바로 현악 4중주단 활동이다. 꿈을 이루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 첫발을 떼게 됐다. 금호4중주단 창단 멤버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현순이(광주대 교수), 첼리스트 박문경(광주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씨가 그와 꿈을 나누는 파트너다. 당분간 비올리스트는 객원으로 운영하면서 마음이 맞는 이를 찾을 생각이다.

"현악 4중주단 꿈을 이루게 되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두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먼저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실내악 활동을 하려면 무엇보다 멤버 구성이 중요하죠. 마음이 맞는 학구적인 파트너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전 너무 빨리 찾은 것 같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만나 연습 하기로 했어요. 진지하게 공부하고 함께 연주하고.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시향 악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한편 1년에 한차례씩은 개인 독주회를 열고 현악 4중주단은 2차례 정기연주회를 열 계획이다. 올 여름에는 플루트를 전공한 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도 앞두고 있다.

"광주시향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즐기고 소비하는 팬층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즐기러 오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드려야죠. 광주시향의 악장뿐 아니라 현악4중주단원,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무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4세에 시작 15년 유학후 악장에
"시민 함께하는 시향 만들고 싶어"
2·4월 독주회 등 개인 스케줄도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브람스를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만. 그는 광주시향의 든든한 리더로, '현악4중주단' 단원으로 다른 클래식 장르에 비해 소외돼 있는 실내악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도전을 시작한다.

/글=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종만은
- 1981년 충북 청주 생
- 중학교 재학시절 런던 퍼셀음악학교 유학
- 런던 왕립음대, 독일 아헨 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수학
- 독일 하겐 시립교향악단 악장, 독일 크로스 챔버오케스트라 단원 역임.
-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

■ '이종만'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감성 충만 자유로운 음악…나는 행복한 예술가"

▲해피맨

런던 왕립음대 오디션 중 학장과 몇몇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보는 시간이 있었다. 미리 작성해야 했던 본인소개서의 항목 중 장래희망란이 있었는데, 나름 오랜 고심 후 '해피맨' 이라고 적어냈고, 그것을 본 면접관들은 나의 답안을 재미있게 받아들였다. 아마도 기대했던 대답들은 오케스트라 연주가라던가, 솔리스트 같은 앞으로 추구하는 직업이었을텐데 난 우선 내 자신이 음악을 통해 진정 행복해지고 싶었다.

내게 음악이 짐이 아닌 즐거움, 만족, 행복으로 다가왔을때 한평생 음악인으로서 후회없이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다.

▲내려놓음

굳이 음악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치 중에 내려놓음, 비움이란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예전엔 나의 욕심으로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 급급했었고 그만큼 좁은 시야로 음악을 접했었다.

그러다 어느순간 '나만이 특별하진 않다'란 당연한 깨달음을 배웠고, 나를 내려놓고 보다 객관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악기를 켜다 보니 자연스레 육체적인 릴렉스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자유로움, 자연스러움에서 비롯된 더 큰 가능성과 비밀을 알게 되었다.

▲감성

모든 예술의 시작은 인간의 표현욕구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 수많은 직업 중에서도 예술가라면 감성의 날이 더 예민하게 서 있어야 한다.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접할 때 더 깊이 느끼고, 그 느낌을 음악 안에서 개성있게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아티스트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쁜아짐 2012년 대박 힛트 사업 체인점 大모집
10호점까지 어마 어마한 특전을 드립니다.
철판콩나물불고기
철판 생오리 불고기 | 철판 닭다리 불고기
철판 돼지 불고기 (100% 국내산)
국내산돼지고기 150g에 아삭한 콩나물과 야채를 듬뿍넣어 철판에 볶아먹어도 단돈 5,000원
날씨도 경기도 모두 꽁꽁 얼어붙은 이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의 따뜻한 먹거리!!
이가격에 이렇게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시장 볼 필요없이 재료 공급에서 양념까지 본사에서 당일 배송합니다
- 인건비 초 절감! 주방장이 전혀 필요없고 일반인이나 남자도 쉽게 조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저희 이쁜아짐이 제안하는 초저가 창업 비용으로 창업 성공의 열쇠로 문을 여십시오.

초저가 창업!!
특전 1 : 가맹비, 로열티 일체 없습니다.
특전 2 : 기존시설 최대활용, 강제적인 인테리어 비용 없음.
특전 3 : 신규 시설시 최저가 시공보장.
특전 4 : 신규 창업시 창업비용 대출알선
때를 놓치고 땅을 치고 후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자리를 선점 하실수 있습니다.
메뉴
철판 콩나물불고기 (국내산 돼지고기 150g) 5,000원
철판 콩나물 오리불고기 (국내산 생오리 150g) 6,500원
철판 콩나물 닭다리불고기 (국내산 생닭 150g) 6,000원
고기류
100국내산 생삼겹살 (1인분) 180g 6,800원
소갈빗살 (미국산 1인분) 180g 6,800원
차돌박이 (미국산 1인분) 180g 6,800원
탕류
소갈비 감자탕 소갈비 해장국
뼈다귀 감자탕 뼈다귀 해장국
생오리 감자탕 소머리 곰탕
각 지역 지사 및 지사장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 전화 주세요.
이쁜아짐체인사업본부 062-265-8900
• 본부장 직통 010-9885-2025
• 야간 및 공휴일 전화 친절상담 011-803-2612
오치점(북부경찰서 옆) TEL. 062-264-5343 | 교대점(서방사거리) TEL. 062-526-6617 | 광명점(쌍촌동 광명하이츠 앞) TEL. 062-375-3881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